

자궁경부암은 조기에 진단되면 완치율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이상 증후를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입니다.
미국 암협회에서는 성경험 시작 시기와 상관없이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암협회 가이드라인 ACS,2012)

 이원의료재단
EONE Laboratories
www.eonelab.co.kr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을 위한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HPV genotyping



(우)22014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291
대표전화 1600-0021 / 고객센터 032-210-2100



자궁경부암이란

자궁경부암은 자궁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으로써 2분마다 한 명씩, 매년 60만 명의 사망자를 내는 질병으로 전 세계 여성암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핵심원인은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으로 성생활을 하는 여성 5명 중 4명이 50세 이전에 한 번 이상 감염될 정도로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발견되면 자궁경부암의 발생 위험도가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초기에 진단되면 완치율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궁경부암 치료 후 5년 생존율은 1기일 때 80~100%, 2기는 70~80%, 말기인 4기에 암이 발견되면 15%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여성이라면,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자궁경부암 검사종류

◆ 세포진 검사(Pap Smear)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 자궁경부세포의 이상 변화를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검사

◆ 질확대경 검사(Colposcopy)

세포진검사나 육안 관찰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비정상 부위를 확대하여 보는 검사

◆ HPV유전자형 검사(HPV genotyping)

세포진검사나 질확대경검사 등으로는 알 수 없는 자궁경부세포 내 HPV 감염 여부 및 HPV 유전자형을 동시에 검사하는 방법



HPV 유전자형 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100여가지가 넘지만 이 중 15여종이 자궁경부암 발병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1. 자궁경부에 감염되는 HPV 유전자형을 진단합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진단하고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인지, 저절로 소멸될 수 있는 바이러스인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2. 자궁경부암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고위험 HPV 유전형의 지속적인 감염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암의 조기진단, 예방 및 효과적인 질환관리가능합니다.

보통 1년 이상 특정 고위험군 HPV 감염이 지속되는 경우 발암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위험군 HPV type의 지속적인 감염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HPV유전자형에 따라 발암 위험도, 암 종류, 암 전이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HPV 유전자형 검사는 중요합니다.

발병 초기에 HPV 유전자형을 알아내고 즉각적인 치료를 받게 되어 불필요한 비용지출과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백신접종 전 HPV 유전자형 검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HPV 16,18형의 백신이 도입되었지만 백신이 없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HPV type의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HPV에 감염된 상태에서 백신을 맞게 된다면 면역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접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궁경부암 자가진단

자궁경부암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 성경험이 있다.
- 성관계 파트너수가 많은 편이다.
- 약취성 분비물과 출혈성 분비물이 나온다.
- 하복부와 하지에 통증이 있다.
- 잦은 오역이 있다.
- 흡연 경험이 있거나 현재 흡연중이다.
- 피임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 자궁경부암의 가족력이 있다.
- 클라미디아에 감염된 적이 있다.
- 분만한 횟수가 많다.

◆ 해당하는 사항이 많을 수록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되었거나 자궁경부암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검사전 유의사항

- ◆ 생리 시작일로부터 10~20일 사이에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리기간 중 검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폐경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검사 가능합니다.
- ◆ 검사 2일 전부터는 부부관계를 금합니다.
- ◆ 검사 1주일 전부터는 질정이나 질안에 삽입하는 피임제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검사 1~2일 전에는 질 세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외음부 세척은 무방합니다.)